

THE CHURCH OF JESUS

성도의 빛

ADMINISTRATION BUILDING

3

성도의 벗

1968년 3월호
Vol. 4 No. 3

순서

권두언 : 참다운 감사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가장 다채로웠던 대회 헨리 에이 스미스 2

기도의 힘 부대관장 앤 엘든 테너 4

관리 감독단 페이지 : 성찬에 관하여 존 에이취 반덴버그... 8

청소년편 :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10

상호 부조회 :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
벨 에스 스페포드13

어린이 차지

주일학교 : 오직 탐구하고 연구하여
디 크라이스 폴로스16

계보란 :20

선교부장 멧세지 : 형제애 배 일 문22

1968년도 제1차 지방대회24

지부소식26

1967년 10월 4일 공보부등록라—932

발행일 1968년 3월1일 통권 제32호

발행인 배 일 문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번역 출판부 한국지부(T.S.D.)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본부 73—3995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210

인쇄소 : 삼 화 인 쇠 소

이달의 표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본부 건물

영적인 말씀



오늘날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귀에, 혹은 소리 없이 마음 속에 혹은 성령으로 인도된, 주님께서 인정하신 종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음

성을 직접 들려주실 때 과거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해롤드 비리(십이사도정원회)

럼 오직 소란한 소리만을 듣는 때가 많다. 이처럼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마음, 즉 영감받은 지혜나 내적인 확신을 얻지 못한다.

옛날 예언자들은, 모두가 알아야 할, 기도로서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한 다음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응답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17:3)를 안다는 것은 이 영광된 분들이 제신 곳에서 얻게 될 영생으로 가는 길위에 들어서는 것이다.



참다운 감사

대관장 데이비드 오·멕케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사와 걸치레의 감사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외형적인 감사는 마음의 감사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까. 자칫하면 외형적인 감사는 말에 그치고 맙니다. 참다운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것을 수확이나 이윤등의 세상적인 축복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축복에 접했을 때 생기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따른 이익금이나 생각하며, 풍성한 수확이나 감사하며, 세금을 물기에 충분한 수입을 올리게 되어서야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 감사 자체는 전혀 이기적인 마음의 소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원만한 가족 관계가 유지되며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풍성이 축복을 낳는다고 생각하는 예입니다. 식탁은 차고 넘칩니다. 냉장고에는 고기가 가득하며 창고에는 곡식이 넘칩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의 감사란 전혀 이기적인 요소로 생기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에 기초를 둔 감사의 태도란 꽃이 일광의 변화에 따라 만발하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는 것처럼 맑은 하늘이나 순조로운 항해 때에만 생기는 감사의 태도라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개인적인 안위나 번영 그것 자체가 감사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니 그것이 없어지는 날에는 기쁨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과거의 역사 기록에는 침통한 면이 있습니다. 고통과 손실과 실의와 죽음과 마음 아픔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음식 저장고가 비었고, 초라한 식탁, 쓸쓸한 가정, 주인없는 의자만이 덩그러니 둘러있는 환경에서 지낸 사람은 감사할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 점이 바로 열의에 찬 사람들의 생각에 차질을 가져오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병혹한 좌절의 상태에서 참다운 감사의 정도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즉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조건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조건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슬프거나 즐겁거나 구애받지 않는 생활의 저변에 흐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번영하고 나서도 감사한다는 생각을 옆으로 밀어놓지 말고 부자

나, 가난한자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감사의 념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들 실제적인 조건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감사하지 않으면 안될 요소는 바로 삶 자체입니다. 삶은 대부분이 인간에게는 신비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삶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할 수 있는 선물중에 가장 숭고한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신체의 불구자라 할지라도 이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둘째 요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 땅의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권과 자유 행동을 뜻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만이 행복을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의 회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때면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이 훌륭한 선물을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음을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감사하는 것의 몇 개를 여기에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훌륭한 부모님과 가문에 대하여.

둘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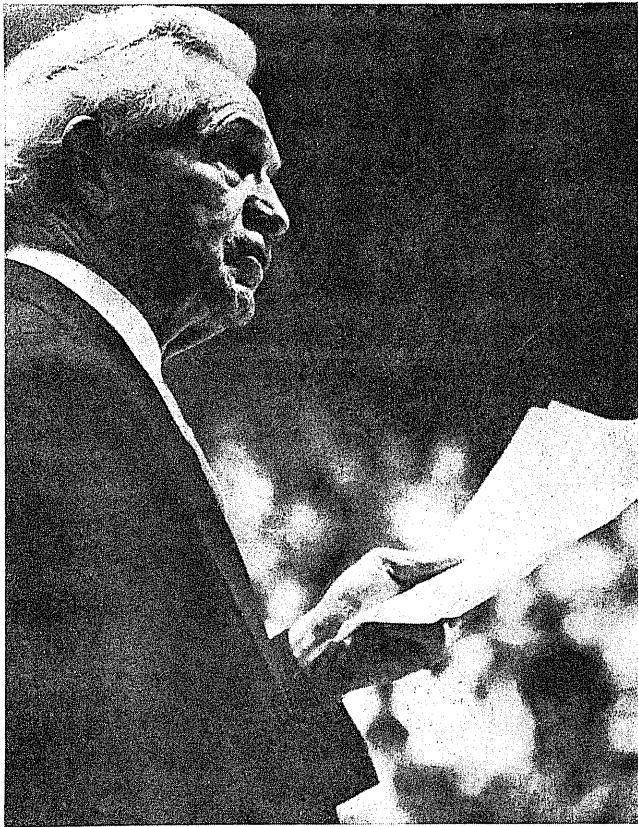
셋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즐길 기회와 능력에 대하여. 달려가 찾지만 하면 피조된 것의 모든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하여.

넷째. 애정에 넘친 가족 관계와 사랑하는 사람과 충실한 친구에 대하여.

다섯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유익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감사하는 것은 친절과 사랑의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자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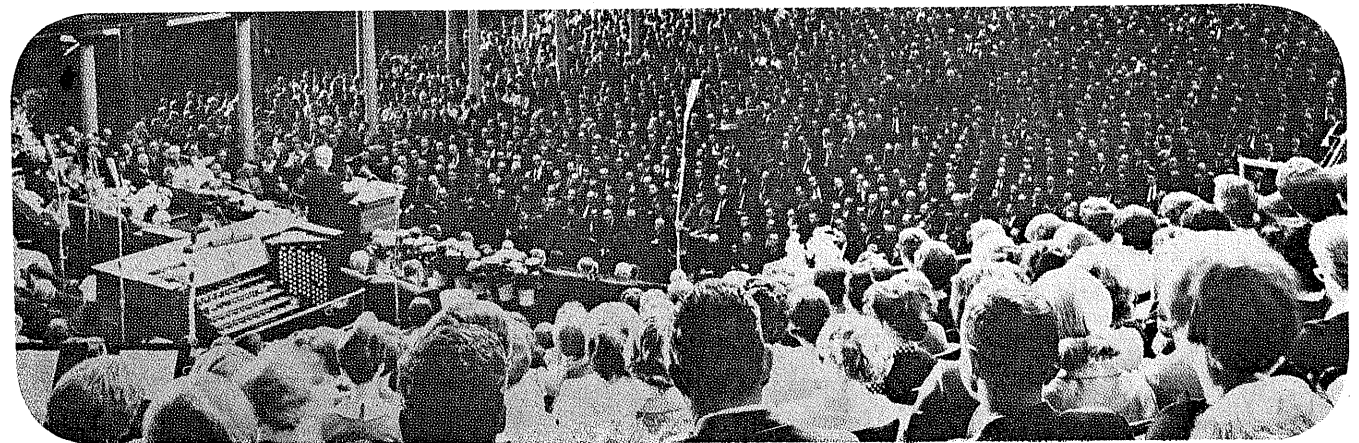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감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봉사가 아니고 이웃을 위한 봉사를 말입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행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근본 율법이나 교회도 그런 뜻에 입각하여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제각기 역량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마태 25:40)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0월 연차 회의의 개회식은 맥케이 대관장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절정에 올랐다. 1966년 9월 8일로 대관장님은 94회 생신을 보내셨다.



대회 각 모임 사이에 성도들은 다른지역에서 온 회원과 사귄 기회를 가졌다. 이 대회에는 세계 각지의 스테이크의 대표자가 전부 참석했었다.



가장 다채로웠던 대회

헨리 에이 스미스

교회사상 가장 다채로웠던 총회의 막은 내렸다.

축점은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계성을 띄고 있다는데에,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쪽에서나 지지 행사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회원 쪽에서도 잘 나타나 있었다.

137차 연차대회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개회사에서 강조하신 단결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가운데 금요일 아침에 시작됐다.

제일총회에 참석하셨던 교회의 지도자 맥케이 대관장님은 주치의의 만류로 개회 이후의 모든 순서는 맥에서 텔레비존 화면을 통하여 진행을 지켜 보셨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대관장님은 개회사, 신권회 때의 말씀, 주일 오후의 폐회사등 세번에 걸쳐 말씀하셨었는데 개회사 이후의 말씀은 대관장님의 영적인 로버트 알 맥케이가 대독하였다.

연사중에는 교회의 세계성을 강조한 분이 많았으나, 12사도회에 의하여 임명된 69개 지역 대표에 대한 임명과 금요일 오후 총회에서의 지지에서 오히려 교회의 세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였다.

동시에 총관리 역원에 대한 지지가 있었으며 1958년 10월이래 12사도회 보조로 일해 오신 알빈 알 다이어 장로가 사도로 지지받았다.

다이어 장로의 임명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12

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지 않은 채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경우가 3번 있었다. 부리감 영 이세는 1864년에 사도로 임명되었으나 1868년까지 12사도 정원회로 성별받지 못하였다. 요셉 에프 스미스는 1866년에 선임되었으나 다음 해에 12사도회로 선택 받았다. 실베스터 큐 케논은 1938년 4월에 사도가 되었으나 1939년 10월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를 받았다.

69명의 신입 역원은, 이전에 4개의 스테이크로 구성되었던 지역의 규모보다 더 적은 단위로 분활된 109개의 지역에서 일하게 된다.

이들 69명의 새로운 대표의 지지를 묻기 전에 휴 비. 부라운 부대관장님은 대관장회의에서 보내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낭독했다.

“교회의 회원 여러분에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바와같이 1941년 대관장단과 12사도회에서는 날로 성장하는 교회를 감독하고 그에 부수되는 일을 도울 신권 소유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41년 4월 대회에서 12사도회의 보조를 지명, 지지하여 이들이 “주님의 일의 수행에 필요한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요구에 호응하여 대관장단과 12사도회에서는 안내와 지시를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고로 12사도회의 지역 대표자로 임명될 형제를 부르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지명 받는대로 지역 또는 스테이크내의 교회 모임을 감독하고 충고하는등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일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들 12사도회의 지역 대표들은 교회의 “총관리 역원”은 아니지만 길거나 짧거나 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 시간을 교회에 봉사하는 스테이크부장과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대관장회와 12사도회의 지도를 받아 구체화 될 것입니다.”

대관장단의 다섯분의—데이비드 오 벅케이 대관장, 휴 비 부라운, 엘튼 엔 테너, 죠셉 필딩 스미스, 토프 비 이삭슨 보좌—서명이 모두 들어있는 공문이였다.

금요일 어썬블리 홀에서 가졌던 특별 모임에서 443스테이크의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12사도의 지역 대표의 임명과 특별 지시 사항이 전달 되었다. 이들 지역 대표들은 대관장단과 12사도 정원회의 지도로 이틀간의 특별

연구 훈련을 받으 바 있다.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며, 교회 신권협의회 회장인 헤롤드 비. 리 장로는 전체 신권회에서 새로운 감독 계획의 골자와 내년도 스테이크 대회에 관한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리 장로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지역 대표자들이 실제로 활동하게될 계획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1967년도의 나머지 스테이크 대회와 지역 모임의 임명은 즉 선교사, 가정복음, 복지계획, 계보위원회등 4개 신권 위원회의 회원들에 의해서 계속된다.

이들 위원회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종료되며 동시에 위원도 전직에서 해임된다.

신권회 대회 말씀에서 리장로는 1968년 1월에 시작되는 이 계획에 의거하면 “스테이크의 전 회원”의 참석하는 모임은 주일 아침 일반 총회 한번뿐이라고 설명했다. 토요일 오후와 저녁 총회에는 선택된 지도자만이 참석한다고 덧붙이셨다.

계속하여 리 장로는 “총관리 역원은 4회의 스테이크 대회중 2회에 지명을 받으며 물론 그들이 참석하는 대회를 감리하고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관리 역원이 부재할 경우 스테이크 부장은 대회 순서에 따라 모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보조 조직의 총관리 임원은 1968년 1월 1일 이후에는 스테이크 대회시 스테이크를 방문하지 않게 되나 지역 모임에는 계속 참석한다. 정기 스테이크 대회에는 오후 총회 대신에 새로 임명된 감독이나 다른 스테이크의 지도자를 위한 교육을 교회 총관리 위원회 주관으로 갖게 된다.

스테이크 대회가 진행중인 일요일에는 와드 단위의 성찬식을 가져야 한다고 리 장로는 말씀하셨다.

선교사, 계보, 가정 복음, 복지등 신권회의 4개 위원회의 계획은 각 지역마다 일년에 두번 씩 열리는 지역 대회에서 관찰하기로 되었다. 새로 선임된 12사도회의 지역 대표자들은 이들 지역 모임을 관리하고 일을 계획하고 순서를 정할 책임이 있다.

스테이크 대회시의 지도자 훈련에 관하여 리 장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셨다 “스테이크 대회의 토요일 밤 집회는 신권회의 4개 위원회 계획과 일반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에 입각한 문제를 지침서를 중심으로 전달합니다. 스테이크 신권회 역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교육을 갖게 됩니다. 스테이크의 부장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감독이나 스테이크및 와드의 신권회 지도자들이나 보조 조직의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갖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의 힘

부 대관장 엘튼 엔. 테너

다음의 글은 대관장단의 엘튼 엔 테너 부 대관장님이 솔트 레이크 태버나클에서 있었던 137차 연차대회에서 행한 설교 전문입니다.

백케이 대관장님, 그리고 여러 곳에서 모이신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100여년 동안 교회의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연차 대회를 가져온 이 아름답고 역사적인 태버나클에 함께 할 수 있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으며,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며, 새로운 신앙과 굳건해진 간증을 얻게 됩니다. 또한 방송망과 텔레비존의 화면을 통하여 교회 지도자의 훌륭한 말씀은 세상 어디를 막론하고 퍼져 나갑니다. 청취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방금 태버나클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습니다. 1847년에 조직된 것으로 리차드 엘 이반사도가 담당하시는 영적인 말씀과 함께 1929년 이후로는 수백만 사람의 청각을 자극해왔습니다. 약 한달 전에 캐나다, 뉴욕, 미시간,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마사쉴레츠, 로드 아일랜드 등에서 가진 연주로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 주었습니다.

대관장단과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교회의 모든 회원을 대신하여 이삭 엘 스튜어트, 지휘자 리차드 피 콘더와 제이 웰크와 반주자 알렉산더 슈라이너, 로버트 키팅과 로이 다알리와 합창단원 여러분과 지금의 성공으로 이끄는 데 공헌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주님이 계속하여 성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나 영감받은 지도자와 충실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큰 분들의 인도로 맞아온 대회를 접할 때 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며 저의 말씀이 그분의 영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의로운 가운데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하여는 강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세상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이 이루어 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기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 감사와 영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았으면 합니다.

저의 생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된 경우가 여러번 있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며, 제가 지금 처한 직책에서 기도로 주님의 인도와 축복과 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녁 이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심으로 가득찬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이며,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분이 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8)

저는 종종 만일에 우리가 기도의 힘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겸손한 기도로 하늘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며 그분은 우리를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성공을 원하신다는 점을 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리차드 엘 이반스장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잘못을 헤아려 점수를 깎는 심판관이 아니시다. 우리들을 지나치게 영리하게 만들려 하시는 경쟁자도 아니시다. 우리에게 확신을 강요하는 박해자도 아니시다. 우리들의 행복과 영원한 발전을 원하시며, 순종과 겸손과 신앙과 인내로 자신의 생의 기회를 마치는 사람에게는 최선의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는,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라고 느끼기 위하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자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번영을 염원하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에게 기도를 드렸다는 최초의 기록을 모세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이브는 주의 이름을 부르니 에덴 동산 동편 길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나 주를 뵈지는 못하였나니 이는 저들에게 주의 임재하신 곳에 가지 못하게 문이 닫혀 있음이더라.

이에 아담과 그 아내 이브는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이 그 아내 이브를 아니 이브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으니 가로되 내가 주께로부터 한 아내를 얻었나니 그러므로 저는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나 보라 가인은 듣지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알아야 할 주가 누구요 하더라.” (모세 5:4, 16)

위대하고 영향력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읍니다. 이 나라도 기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스트롬 터몬드 상원의원이 작년 5월에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1620년 11월에 쓰여진 ‘메이 홀라우어호의 투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이를 엄숙하게 마음을 합하여 바치는 바이며…… 시민 정치 체제로 우리들을 결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혹독한 춥고 겨울의 겨울에 조지 와싱턴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이 나라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1787년 6월 제헌 국회때, 수주일에 걸친 회의에서도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벤자민 호랭크린은 일어나 조지 와싱턴에게 이렇게 건의하였습니다.

“대통령각하, 4, 5주일동안 면밀한 주의와 계속적인 토론을 해왔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하였음은 인간의 이해가 불완전하다는 우울한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지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정치 형태를 찾아 고대 역사로 되돌아 갔읍니다. 현대의 그것도 검토는 하여 보았지만 우리의 여건에 적합한 헌법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하, 우리들의 이해의 빛을 위하여 광명의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간구하여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영국과의 전쟁 시초에, 우리들의 신변에 위협이 닥칠 때 마다 우리는 이 방에서 신의 보호를 매일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너그럽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즉 매일 아침 이 의사당 안에서 우리들의 협의 사항에 하늘의 도움과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행해졌음은 물론이며, 현재 우리들은 기도로써 응답을 구한 그들 노력의 열매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나라에 기도가 끄쳤던 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인도를 구하였던 링컨은,

“겸손하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존하여 자신의 죄와 범법을 고백하는 일은 인간은 물론 나라도 가져야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나라의 하나님이니 될 때에만 축복받을 수 있다는 숭고한 진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저희들이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도록 해 주시오며 우리들의 하는 일과 행동을 그 구별에 따라 그리고 이 나라의 국법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조국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전신을 발명한 사무엘 비 볼스는 자기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빛과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든 쿠퍼 우주인이 지구의 궤도를 돌면서 한 따듯하면서도 단순한 기도를 보면 :

“아버지 특히 저를 이렇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위치에 처하여 훌륭한 장소에 올라와 당신이 만드신 놀랍고도 훌륭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며 이 나라의 종교적인 유산을 기쁘게 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야 한다는 터몬드 상원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도란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분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며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접촉하여 의사를 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과의 기도와 교통이 바로 사회의 주춧돌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어느것 보다는 큰 재산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현재 살아계신 예언자들은 쉬지않고 기도로 인도를 간구하였으며 주님 자신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끄치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눅 6:12)

주님도 기도하라고 훈계하셨고 야고보를 통하여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야고보서 1:5~6)

이 약속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 그리고 우리들 이웃 전 부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믿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가 기도로 자신을 조정하며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언제나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 (교성 82:10)

주님은 또한 겸손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고대 예언자가 말씀하신 것 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 중에는,

“스스로 교만하여 저서 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리니, 저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권세를 던져버리고 저희들의 지혜와 지식을 저희 가운데 가르쳐……”(니이 26:20)

바울은 세상의 교만한 자를 가리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4)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1)

작고하신 루우벤 제이 클라크 부 대판장님은 :

“하나님을 배워 그의 인도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자기의 학식과 업적으로 생기는 자만심을 마음속으로부터 버려야 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주의 총명한 온전한 진리에 비교하여 볼 때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의 지식이 대양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겸손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멸과 영생에 이르는 길 6페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전세에 관한 지식, 지상에 온 사명과 목적, 내세 또는 죽은 다음의 생명이 진실하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 한 행동이 내세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을 아주 쉬운 말로 인간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교리로 그릇되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과 철학의 연구도 “인간이란 무엇이며 왜 이 곳에 있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이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 사람과 같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 : 7~9)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시기를 바란다면 인간은 겸손한 마음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 : 16)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믿기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주인이 지구를 떠나 시속 수천 마일의 속도로 외계를 돌면서 지상 본부의 통제를 받으며 지시를 받아 임무 수행을 한 다음 역시 지상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동하면서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모든 일을 지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과학이 만든 기구인 서베이어 3호는 달을 향해 지구를 떠나 지상 인간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조사하다가 조사를 멈추기도하고 보고도 하는가 하면 사진도 보내다가 다시 조사도 하는등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건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주인이나 서베이어와 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지상의 사명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며 만일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계속하여 접촉을 갖고 우리들이 하여야 할 바를 한다면, 우리가 돌아올 때, 무사히 귀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애쓰십니다.

그러나 기도로 축복을 바라는 우리들이 그분의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알며, 참다운 봉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그분의 용서를 빕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니파이 3서 13 : 14~15)

여기서 잠깐 우리들의 현실을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자신이 곤경에 빠질 때 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에게 달려가, 주님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거나 우리 자신에게 알맞은 축복으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와 힘과 결단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분의 요구에 응할 준비를 갖추십시오.

인간이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다른 골목에 다달아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비극, 한해, 질병, 기근이나 전쟁시 정부는 국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게 하여 보호와 인도를 바라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낫게, 어떤 사람은 기운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의로운 가운데서 보살핌 축복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주신 하늘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 기도회 때에 조그만 딸이 하는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축복을 바라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집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만 돼요.” 그런 일이 있던 다음부터는 한층 더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의 감사를 표시하기에 한층 더 부지런하게 되었고 그분이 주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받은 축복에 감사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으며, 그리하여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여준 댓가로 감사의 말씀을 듣거나 받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압니다. 우리 선조들은 감사하기 위한 날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저희들 중에 그 날을 혹시라도 잊고 계신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문둥병 환자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거나 앓았나 생각하고는 합니다. 우리들은 우짚는 열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나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눅 17 : 15~18)

자기를 둘러싼 자객 틈에서 친구 부르터스를 발견한 씨자의 이야기를 안토니오는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

“끔직한 일이다

위대한 씨자가 친구의 칼부림을 당한다.
 박정한 일이로다.
 반역자의 무기보다 더 강한 망은이
 그의 강한 심장을 터뜨리는도다.
 (쥬리어스 씨자 3 막)

주님에게 계속하여 축복을, 잘못된 일의 축복을, 옳은 일을 행할 힘과 의지를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이전에 받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각오가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열심히 맡은 일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두가 의로운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며, 그의 계명을 전부 지키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날을 정하여 기도의 날로 지키면 얼마나 효과적일까를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은 사람이 많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을까하는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가하면 자신이 아는 바에 힘과 능력에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 나오는 관원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 12 : 42~43)

주님 자신이 머대륙에 관하여 말씀하신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보라 이 땅은 복된 땅이라 이 땅을 어느 백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곧 그 나타나심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중된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이더 2 : 12)

주님이 주신 이 경고에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 : 33)

우리들은 여호수아의 결단력과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 : 15)

주님은 부모에게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며 기도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속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운 자녀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가족 기도회에 참여하도록 일깨워 주신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에 기대어 기도하는 법을 익혀주셨으며 제가 하는 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조물주이신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과 저의 행동과 바램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감사하고 용서를 바라며 옳은 일을 행할 힘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 생애를 통하여 이는 하나의 위대한 힘의 구실을 해왔으며 저의 행동은 인도와 지시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제가 하는 일이 모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어느 때 보

다도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회에 참석해서 아버지가 주님에게 간구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실제로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표시하든가 아니면 올해의 농사나 가족이나 그밖의 모든 일에 축복을 비는 모습은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졌을 때 큰 힘이 되었으며, 그때마다 밤에 주님에게 이야기하던 일이 생각나고는 합니다.

어느 가족이든 가족 기도회는 가족 사이를 가깝게 해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 자녀들 사이의 정을 두텁게 해줍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부모에 대하여 깊이 감사할 수 있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서로를 아낄 수 있게되며 특히 가족 기도회나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바램을 듣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화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점을 발견하며 다른 사람의 행부와 약점을 극복할 힘을 기도로 간구할 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조화되도록 노력하며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기도로 축복을 원하면서 그분의 뜻을 수행할 의지를 밝히는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경고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상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끝까지 충실하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이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곧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야기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교성 31 : 12~13)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 : 16)

저는 “왜 사람들이 기도를 거부하는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가?” 라고 자문자답하여 보고는 합니다. 저는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는 만아들에 대하여 의논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와의 면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훌륭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절망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가족 기도회를 갖고 있는가를 물었더니, 때로는 합니다만,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또 한 시간에 모일 수가 있어야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만일에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을 경우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아침 저녁 일주일 동안 가족 기도회를 가질 수 있겠지요?”

“그야 물론이죠.”

그때에 저는 아이를 잃는다는 죽음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가족 기도회를 갖고 있는 가정의 가족은 항상 함께 있게 되며 그들의 이상은 높으며 아픔함을 느끼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기를 “백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영리하여 남의 도움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축복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것이 었습니다.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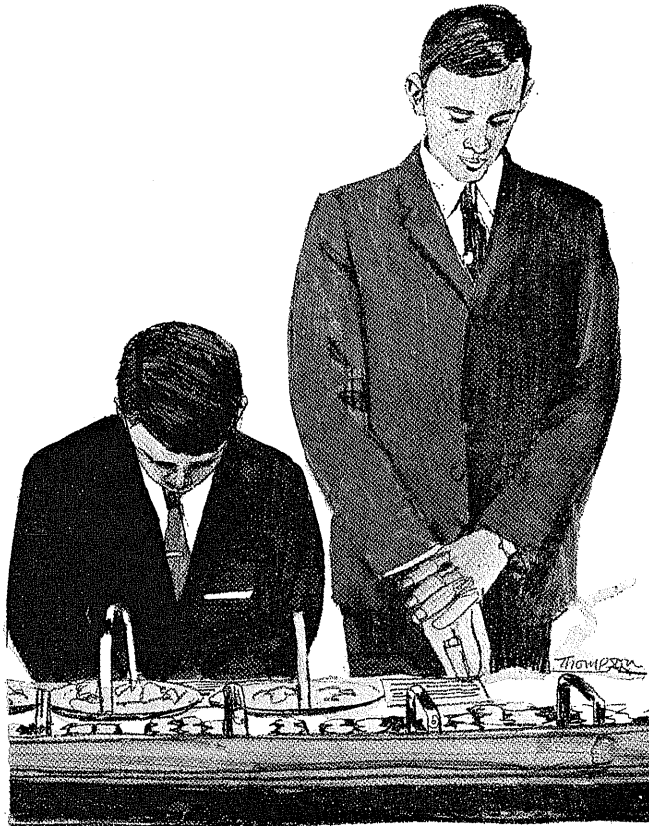
<9페이지에 계속>

성찬에 관하여

관리감독 존 H·반덴버그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을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어 보았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19편 16절)



주님 자신이 제하셨던 최초의 성찬식에 함께 가 보시겠습니까? 이 모임 이전에 주님은 벌써 앞으로 닥칠 고통을 아셨고 몇 시간 후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삼년동안 전도의 생활을 같이 하였으며, 깊이 사랑했던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비록 그들 중의 하나가 자기를 팔며 나머지 사람들도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대로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것을 아셨지만 최후의 화평한 순간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분이 무엇을 하려 하셨는지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희생이 그들 자신과 이미 이 세상을 살았거나 앞으로 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나 그밖의 교회 회원들이 참마음으로 또 정기적으로 집행하여 얼마 후에 닥칠 그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성찬을 친히 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제정하실 만큼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첫번 성찬식 때에는 주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 : 26~28)

이 의식의 회복과 동시에 주님은 신권 소유자들이 이 성스러운 상징물을 대신 축복할 수 있는 전능을 주셨습니다. 이 때가 찬경문의 시대에 젊은이들은 같은 성찬 의식을 수집합니다. 성스러운 책임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갖고있는 젊은 여러분은 주님이 손수 집행하셨던 의식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성찬을 축복하고 준비하며 전달합니까? 이러한 생각이 집사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찬식 중에는 경건성을 유지해야 하며 위엄과 존경으로 성찬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합니까?

이러한 생각이 성찬을 준비함에 있어 모임 전에, 완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까? 모든 회원을 대신하여 이 성스러운 상징물을 축복하는 엄숙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제사 여러분은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니까?

성찬식의 책임이, 성찬 축복대나 예배실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생활의 순간 순간을 연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찬을 들 수 있기에 합당해야 함은 물론 신권 소유자는 이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도 합당해야만 합니다. 맥케이 대판장님이 연차

대회에서 신권 소유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성찬식에 관하여 “저는 이 성스러운 의식이 완전한 질서 가운데 보다 더 깊은 경건에 싸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집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용히 묵상할 수 있으며 차분히 가라앉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깊은 감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장 여러분은 이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이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고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식 자체를 집행하는 사람과 참석한 회원들에게 참다운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경건하게 진행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신지자의 이런 말씀을 꼼꼼히 생각하여 보면 주님께서는 이 의식을 집행할 권리를 쥐고 계시며 아울러 그것을 성스러운 특권으로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권을 소유한 젊은이라면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각 와드나 지부의 감독 및 지방장은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에 일임하여 매주 이들 젊은이들이 성찬을 준비하고 관리하기에 합당한가를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훌륭하고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빵과 물을 축복하여 전달하는 것에 끄치는 행사가 아닙니다. 신권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약의 계 속에 담겨있는 성스러운 것을 지시대로 다루지 않고 권능없이 다루었기 때문에 즉사한 옷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오늘 날의 신권 소유자가 자기가 참석하고 있는 성찬식의 참다운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성찬식의 성스러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하여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가 우리들이 이미 이야기한 바 있는 모임에서 성찬식을 소개하신 후에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가장 위대한 희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산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으나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님은 회개와 침례를 통하여 자신을 준비한 모든 인류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셨으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겪는 영적인 죽음을 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생각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위대한 희생이 없었던들 생활의 희망이나 목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과 희생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고난을 겪어 보았음이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며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일찌라도 고통으로 인하여 떨었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았고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니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 서려고 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잔을 들이켰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성 19 : 16—19)

우리가 성찬을 들 때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여야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교회의 회원은 삶을 재 정리하고 의의를 찾게 됩니다. 벡케이 대관장님은 성찬을 드는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다음 주일에 성찬을 드는 교회 회원이 이 의식에 담겨진 성약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회원 각자가 아들의 이름을 증거하며,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며, 그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를 기억하며 그가 주신 제명을 지킨다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 안식일 마다 행하는 새로운 성약의 의미와 축복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젊은 여러분들은 성찬의 의무를 감당하며 성찬의 의미와 성스러움과 특권없는 행사할 수 없는 성스러운 책임을 완전히 알아야만 합니다.

(7 페이지의 계속)

알아야 합니다. 후회하고 회개하며 의를 행하겠다는 성약과 아울러 인도를 바라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줄 모르기 때문일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은밀한 중에 하늘 아버지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쏟아 놓으십시오. 정규적으로 기도하여 그와 교통하는 동안에는 평안하고 아늑하다는 감정을 갖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감정을 표시하는 것이 기도며, 주님은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대 예언자 모로나이가 물몬경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중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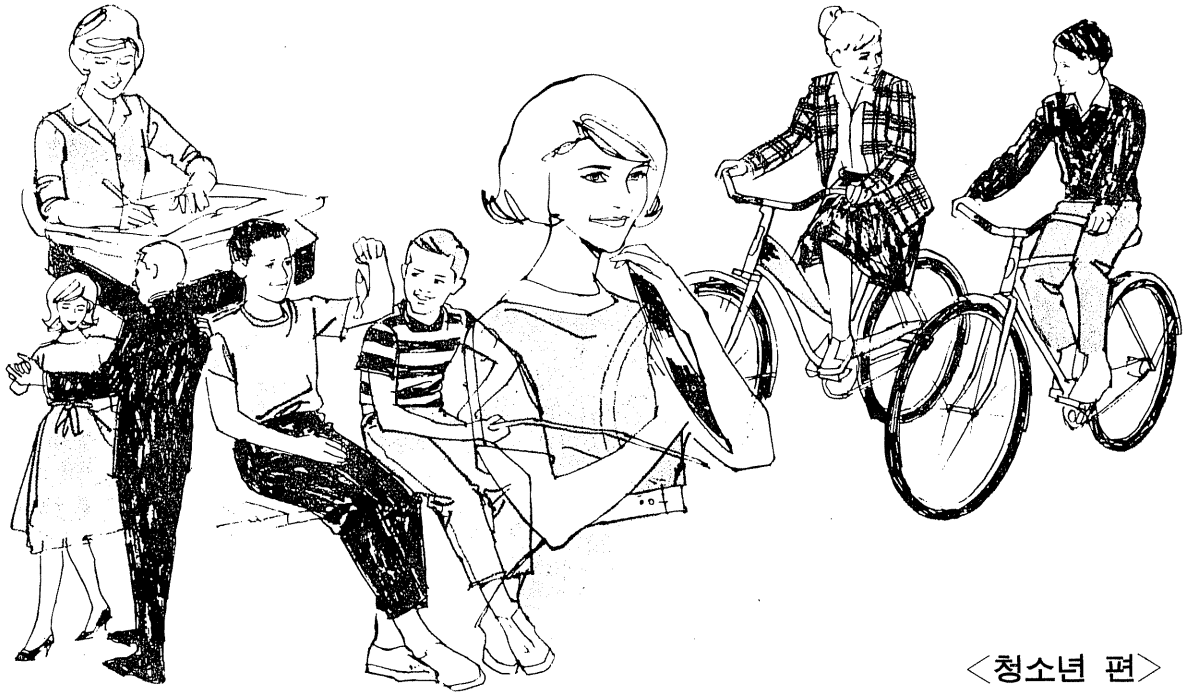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

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혀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서 10 : 4, 57)

이 약속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고 믿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의로운 사람, 주님을 충실히 찾는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의 간증은 우리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열심히 찾으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불멸과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편>

이 세상에서

글쓴이 벅키 스투아트

가장 훌륭한 것

얼마 전 나는 오찬회에서 한 남자 옆에 앉게 되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무척이나 즐겼다. 모임이 끝나갈 즈음에 그는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훌륭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다. 가족 전부가 즐겼던 등산과 야영때에 받았던 기쁨에 대한 이야기였다.

“쌀쌀한 밤에 높은 산에 올라가 사면에서 바람을 받으며 맑고 빛나는 별들을 보면 주위에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제일 훌륭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깊이 묻으며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제 생각으로는 이 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어요. 더 훌륭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도 동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제 개인의 경우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듣고 싶은데요.” 흥미있는 대답이었다.

캘리포니아주 롱 비취로 이사간 후였어요. 제 남편 찰리는 해군 장교였었는데, 그 때에는 집을 떠나 있었어요. 이 특별한 아침에, 제가 두 아이의 옷을 입혀 물건을 사러 나가려 했을 때 문을 두드리는 녹크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롱 비취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옷을 계속 입혔어요. 저는 썰리가 발끝을 자꾸 꾸부리기 때문에 구두를 신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에서는 다시 녹크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끄치지 않고 두드리는 인내심에 짜증이 났어요. 아이 신을 신키다말고 문가로 갔어요. 문 밖에는 젊은이가 두 사람 서있더군요.

“에, 무슨일로?” 무관심한 어조로 물었어요.

그들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물문 교회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는바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좀 알고 싶지 않으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제가 더 알기를 원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흥미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언지 모르는 것이 나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희망에 차 보였어요.

“조금 더 알았으면 하기는 하지만……” 달갑지 않은 듯이 대답했어요.

“언제가 좋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한 마디로 거절하지 못했는지.

“적당한 시간이 있으면……” 저는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답변했어요.

“내일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걸려들다니! 그러나 저는 어찌는 도리가 없었어

요. 시간을 약속하고, 저의 이름을 적고, 제 손을 힘있게 흔든 다음, 웃으며 멀어져 갔어요. 제 자신도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며 열의에 차 있을 수 있을까? 젊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측했어요. 만일 그들이 가정을 갖고, 아이가 넷이나 딸렸고, 더구나 남편이 향해 중이라면 항상 즐겁게 웃을 수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몇 분만 있으면 물몬의 두 젊은이가 밀어닥칠 생각을 하니 짜증이 났고, 미소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들도 저와 같이 잊었기를 바랐어요. 아이들도 칭얼거리지 않고 일하기에 꼭 맞는 시간이었어요.

눅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잊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다시 환한 미소, 성경,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도 따라 웃게 되었어요. 몇분이 지나자 우리는 마치 오래사귄 친구



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요셉 스미스와 교회의 초창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어요. 참으로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젊은이들은, 이제야 선교사라는 것을 알았지만, 가져온 도구를 접고 성경을 닫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저는 실망하여 물었습니다.

“네, 전부입니다.” 한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저는 이 새로운 종교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원하시면 다시 방문하여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참 좋겠네요. 그러면 언제 오실 수 있어요?”

“화요일이 어떨까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번만은 잊지 않았어요. 기다리기 힘들 정도였어요.

화요일은 왔어요. 선교사들은 또 다른 흥미있는 공과를 남기고 갔어요. 저는 물몬 교회가 하루나 이틀 만나서 토론하고 헤어져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주교간 소책자와 물몬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세번째의 토론 시간은 다치고,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로 보면 커피와 차만을 끊으면 그만이었지만 그러기는 정말로 싫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우선 일주일 동안만 끊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 동안에 하늘 아버지에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커피 대신 밀크를 마셔 보았어요. 그 때에 제 마음속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왔다는 부인 한 사람이 내일 자기와 함께 상호부조회에 참석하지 않겠느냐고 초대하는 것이었

어요. 새해들어 처음 갖는 모임이었어요. 점심도 곁들인 여러 가지 순서와 아이들의 육아법의 설명도 있었어요. 저는 집을 방문하였던 부인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아주 매력적이었으며, 미소를 잃지 않고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희망에 넘쳐 있었어요. 이들 물론 성도에게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하여 본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사랑에 넘친 여자는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것 뿐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화평과 안정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분과 만족으로 완전히 조화된 저는 “이곳이 내가 속할 곳”이라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선교사들은 계속 저를 찾아주었습니다. 때로는 공과를, 때로는 저의 많은 질문에 명확한 설명을 남기고는 떠났습니다. 저를 찾아주었던 부인도 방문을 잊지 않았으며, 우리들은 아주 다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바느질, 요리, 독창력을 살린 수공예를 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경험하여 왔던 어떤 단체 보다는 물론 교회와 성도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가르친 것에 대하여 기도하여 보라고 부탁했어요. 해보려구 했어요. 그러나 저에게 기도란 참으로 힘들었어요. 제가 물론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회열을 맛볼 수 있었던 것 처럼 그들의 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들 모두가 갖고 있는 듯이 보이는 내적인 만족감을 얻는다는 데에 생각이 미칠때 나의 실망은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제게 임했어요. 선교사들이 제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총명한 지각과 열의는 저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일러준 모든 말씀

이 참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교회를 지상에 회복하셨으며 그것이 오늘 날 우리들이 참석하는 교회라는 사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물론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저에게 가져다 준 기쁨은 어찌나 컸던지 저는 큰 소리로 웃고 또 웃고 싶었습니다. 이전의 자신은 사랑과 기쁨에 밀려 사라진 것이었어요.

제가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기까지는 여러 달의 시간을 요했습니다. 제가 개종하던 날 느꼈던 회열은 저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달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에 불과 했습니다. 눈을 떠 주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억제키 어려운 사랑으로 가득차고는 했습니다. 조그만 곤충의 날개나, 유난히 뾰족이는 벌들이 모두 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있는 듯 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도 저에게 주어진 축복과 신념을 상기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루 하루가 중요하며 새롭고 기쁨의 나날이었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소개한 두 선교사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없지만 저는 늘 깊은 사랑과 감사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안겨준 선물은 지나치게 커서 그것을 나누는 길이란 감사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의 남편이 아직은 회원이 아니지만, 곧 회원이 될 거예요. 그이는 제가 처음에 열중했던 문제에 시간가는 줄 모르며 제가 그러했듯이 물론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날밤 저녁을 먹으면서 친한 친구에게 “복음이야말로 저의 생애중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이 말을 할 거예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디모데전서 4 : 12~13)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 : 2)



1967년 9월 27일
상호부조회 연차 대
회에서 행한 연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

상호부조회 회장 벨 에스 스페포드



진지한 성격이 필요합니다. 그릇된 태도가 발전했고 하나님의 뜻에 배반되는 행동이 점점 몸에 배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태도와 행동이 반대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정당화 하고 싶어합니다.

재미있는 경험담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이 상호 부조회에게 특정한 조건하에 있는 연로한 자매님들을 보살필 거처를 마련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날 저는 어느 상호 부조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부조회는 회원은 75세 내지 90세의 연로한 자매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기동할 수 있었으며, 정신적으로 생기가 있었으며, 상호 부조회에 열성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을 주제로 한 공과가 있는 다음 신앙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매님들은 지성인답게 그 공과 토론에 열중하고 있었으며, 의사 발표는 풍성한 인생 경험 뿐만 아니라, 교회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며 복음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음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모임이었습니다. 뒤이어 간증회가 있었고, 자매님들은 모두 차례 차례로 일어나서 간증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공과 토론에서 보여준 것 처럼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깊이 느끼고 왜 그들은 거의 모두가 다 저문 인생의 황혼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하고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이미 그들은 생의 체험을 통하여 그 사실을 분명히 체득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재빠른 자에게는 경쟁이 필요 없고 강한 자에게는 투쟁이 필요 없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경쟁과 투쟁이 다 필요하다”라는 금언을 서두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사실임을 밝혀보겠습니다.

견디는 것은 쇠약해지거나 멸망되지 않고 같은 상태로 계속하고 지속시키며 끝까지 수행하는 능력을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충, 고난 및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압도되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가는 힘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눈부시게 시작했거나 인상적으로 첫 발을 디딘 사람들이 아니라 굳건하게 방해물을 제거하며 계속 노력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파악했던 목표와 그들이 대결하여 성취한 투쟁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귀한 축복이 임한다는 귀절이 많습니다. 이 훈계 및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무수한 성취 중에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니라”는 말씀이 교리와 성약 14장 7절에 있습니다.

영생은 말일 성도라면 누구나 얻고 싶어하는 값진 은사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험이 많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더군다나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을 지닌 우리들이 평생 참고 견디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신앙과 강한 신념과

그러나 후에 그들 몇 사람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을만한 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며, 또 연령과 생활 조건 때문에 복음의 율법에 일치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변명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자매들이 저와 이야기하면서 들려준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자매는 “우리는 상호 부조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찬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찬식에 한번도 가지 않았어요. 또 저는 너무 늙어서 복음을 가르칠 수 없어요”라고 말하기에 “당신은 성찬을 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 자매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니요, 제 나이에

그런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가 “저는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그럴만한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제 자신 외에는 저의 돈을 써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족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돈을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에 이제 흥미가 없어졌어요. 십일조도 바치지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는 저와같이 늙은 사람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시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차를 마시고 있던 또 다른 자매가 “저는 차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당신은 아직까지 저한테 차 한잔도 권해본 적이 없지만, 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문쪽에서 발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지금 오는 사람이 우리 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애는 찾아오지 않으면 이웃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찾아올 뿐인걸요. 그 애는 저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며 저도 그애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말을 빌리면 “저는 고통때문에 시달려서 매일 나약해 지는것 같아요, 전에는 장로들이 기쁨으로 축복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몇몇 자매들은 정당하다는 사유를 붙여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성찬을 드는것, 자기의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 십일조를 바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신권 관리 즉, 복음의 모든 기본 원리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기를 열심히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들과 그들이 처한 환경에 동정이 가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적당한 이유를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주님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은퇴 연령을 정하신 적이 있을까?”라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지각하게 되는 것은 늙어서 뿐만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에도 성약을 어기고 의를 지키기에 연약해져서 스스로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계명을 어기고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함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행의 유희,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을 갖지 못한 세상적인 사람과 같이 되려는 욕망, 재난, 이루어지지 못한 기대, 실망 등과 같은 사회적인 압력은 때로 우리를 크게 억압하여 사람을 심히 쇠약하게 만들어 사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경에 까지 몰아 넣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습관화 하지는 않을 테니까”라는 생각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배반되는 행동에 빠집니다. 한 두번으로 손상이 가지는 않겠으나 이 한 두번이 곧 더욱 빈번하게 되어 드디어는 습관화 됩니다. 한가지 사실이 한 측면을 연약하게 하면 다른 또 한 면이 약화되기 쉽습니다. 저는 “성찬식에 계속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게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말하기 두렵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리하여 모하게도 이 파도가 우리 생활에 끼어 들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끈고 좁은 길에서 멀리하게 하는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모

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끊임없이 교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각 계명에 순종할 때 약속되는 축복을 깊이 생각하면서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더욱 더 요망되는 축복으로 교리와 성약 89 장에 지혜의 말씀을 지키라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진강을 얻으며 뼈에 활력을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아 내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 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별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 하리라.”(교성 89 : 18~21)

말라기에 기록된 십일조 헌납자에게 주어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 하나 보라”는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확신을 얻어야 할 사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엘마의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그러나 보라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며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아 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 하게 하라.”(32 : 27)

영적인 힘은 성찬을 합당하게 취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집회 즉 성찬식에 참석하므로써 이루어집니다.

생의 어려움을 생각하기 보다는 수시로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지혜로 부정적인 답을 주실 때는 별로 없는 반면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곤란한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정당화하려는 경향은 마치 전염병을 피하려는 것 처럼 피해야 합니다. 힘은 실천하므로써 커가며 주님은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도움을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삶의 고통이나 참고 견디려고 충실히 노력하는 중에 달성하려는 목표는 난관에 관계없이 성취되며 장애를 극복하고 꾸준히 신앙을 지키며 꾸준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성구를 보면 인상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그의 부친이 연로했을 때 태어났으며 자기 형들의 기만으로 인하여 드디어 애굽의 보디팔 집 에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어떤 가해가 있을런지 추측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또한 형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기에게 공격적임을 알면서도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에 대한 형들의 증오로 바싹 여위어 지고 형들이 있는 곳에서 피하려 했던 이 소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 주해서를 보면

“단순한 시기나,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로 인하여 것처럼 심한 앙심을 품을 수는 없다…… 요셉에 대한 그들의 증오감은 그의 특성이 동시에 형들을 늘 책망하게 했던 그의 뛰어난 성격을 싫어했기 때문에 생겼음이 틀림없다……”

애굽 사람의 집에서 더구나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이 소년은 생소한 조건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야콥은 욥친의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와는 떨어져 있지 않았읍니다. 그는 충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켰읍니다. 이로 인하여 그에게는 세상적인 행운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극히 견디기 힘든 고통도 종종 있었고, 감옥에 투옥되는 경우도 있었읍니다. (창세기 4장14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충실했기 때문에 평생동안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안으로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여인으로서 남자에 대하여 가장 파렴치한 유혹을 가해 왔을 때 그녀에게 준 요셉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라는 충고의 말은 그의 앞길을 막는 모든 악에 대하는 그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 80년 동안 끊임 없이 굳은 신앙을 보여주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온 생애는 양심적이며 의로운 행동으로 지속된 의로운 업적으로 특징지워 졌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최초의 기독교인 박해자였다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교사이면서 선교사였던 바울이, 말년에 이르러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했읍니다. (디모데 후서 4장5~8절)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었던 사람들의 놀라운 예를 물문경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하이, 야곱, 물론, 이노스, — 주님께서는 이노스의 충실함을 보시고 레이먼 백성들에게 유리한 약속을 주셨읍니다. — 아빈아다이 및 그의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를 보인 사람들입니다.

아빈아다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빈아다이는 니파이인 예언자였으며 주님께서는 그 니파이를 땅에 세우시고 노아 왕의 잔악한 백성의 죄를 꾸짖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행위에 대한 그의 담대한 비난은 그가 투옥됨으로써 끝났읍니다. 악한 제사들은 그를 죽이라고 떠들어댔읍니다.

“이에 제사들이 일어나 나아가 저를 잡으려 손을 뻗치자 아빈아다이가 이를 뿌리치며 말하기를

나를 다치지 말라 너희가 내게 손을 뻗진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리니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전하게 하신 말씀을 아직 다 전하지 아니하였읍니요 너희가 내게 대답하라 한 바를 다 이야기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에 죽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리라. (모사야 13장2~3절)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그를 죽일 수 없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빈아다이는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사업에 완전히 바쳤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전해야 할 말을 모두 전하리로다. 말을 끝내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상관치 아니하노니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읍니다.” (모사야 13장9절)

아빈아다이가 받은 축복은 분명히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약속이었음에 틀림없읍니다.

이 마지막 신권 시대에도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견디는 힘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이런 예의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면서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며 또 다른 이는 중요하고 신임받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성실했던 사람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 잊지 말고 늘 기억합시다. 그들은 과거 상상의 세계에 나타났던 가상의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것 처럼 현실의 세계에 살고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충실하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중에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유혹을 뿌리치고 고통을 던고 일어나서 강한 신앙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쇠약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욕심을 즐겁게 하는 악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늘 같은 상태로, 우리의 과오를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약점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질 주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저 한다면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해야만 하겠읍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생을 마칠때 바울 사도 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한다면 얼마나 훌륭하며 이 세상이 얼마나 훌륭한 세계가 되겠읍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하여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순종 — 1968 년도 상호 부조회 주제

1. 순종으로 주께 봉사하자
2. 시들지 않는 사랑으로 단결하자
3. 완전한 기록을 보관하자
4.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활동하자
5. 환자와 외롭고 불쌍한 자를 방문하자

<한국상호 부조회>

주일학교 페이지



.....오직
탐구하고
연구하여

디. 크리스 폴로스



어느 유명한 영국의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문명한 세계에 살고있는 사람은 대개 살고 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연구하거나 탐구한다고 했다.

나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종교를 포함한 몇몇 특수 분야의 것을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하려는 사람의 수는 극히 소수임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은 대개 먼저 무엇인가를 배운 후에 일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알게되면 우선 도움이 된다.

포에닉스의 어느 가정 주부는 자녀를 모두 길러낸 후 교사 자격증을 얻으려 대학으로 돌아간 일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미 A학점, B학점을 받고있던 어느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의 여학생은 평균 A를 쟁취하고자 배가의 노력을 경주한 일이 있다.

오레곤의 어떤 판매원은 자기 직책의 승급을 피하여 대학에 등록한 일도 있다. 이 밖에도 딸이 참석하는 복음세미나의 교실 뒷쪽에 앉아 복음을 함께 공부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유타에서 강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비록 지금 내 나이가 45 라고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의 학위를 얻는데 필요한 공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좌우간 이번 가을 학기에는 등록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위에 열거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각각 자기들 대로의 어떤 이유로 해서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과연

그들이 모두 원하는 학위를 얻고 성공적으로 그들이 원하던 바를 쟁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그들의 노력과 학습의 태도에 달린 것이다.

탐구란?

공부한다는 것(탐구)과 다른 활동과의 차이 점은 무엇인가? 사전이 정의 하는 「탐구」 「공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식의 습득을 위한 두뇌 운동.
2. 면밀히 관찰하는 것.
3. 치밀하게 생각하는 것.
4. 지성적인 몰두.
5.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

대체로 「탐구」와 일반 활동과의 차이는 노력의 지속성이 아닌가 본다.

존 에이 윌스는 종교의 분야에서만 아니라 일반 학문을 탐구하는 데는 지속적인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종교의 참 진리를 이해하자면 먼저 공부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모든 지식이 포함된다. 이것은 인간과 우주의 제반 관계를 설명하는 철학이며 깊은 탐구와 면밀한 조사의 노력 뒤에 얻어지는 것이다.

일반 과학의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에 있어서도 주제를 깊게 다룰수록 보다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된다.

탐구를 게을리 하고 주제를 소홀히 다룸으로써 수 많은 사람이 불행에 봉착하게 되는데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다년 간의 연구로 과학의 어느 분야에는 어느 정도 통달한 사람이 종교의 연구에는 불과 몇 주를 보내고 나서 자기의 결핍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경우를 본다.

종교를 이해하려면 탐구하겠다는 집착을 가져야 한다.

마구 지껄이는 불신자에게 주어진 과제를 공부했느냐고 물어 보는 일은 현명한 일이다.

...진리에 이르는 길을 걷는 여행자는 모두 자기 발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리의 원리를 연구하자면 사람은 저마다 노력해야 한다.”

요약하면

1. 「탐구」는 부단의 노력으로 一말하자면 피나는 작업으로.
2. 사물의 연구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연구 대상 자체가 지닌 열쇠로 풀어갈 수 있다.

왜 탐구 하나?

왜 공부하느냐? 왜 탐구 하느냐? 에대한 이유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이다.

이러한 이유 가운데는 학식을 위한 학식, 보다 안정된 경제력, 영생을 얻겠다는 열망, 보다 훌륭한 교사가 되겠다는 의욕등이 포함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탐구의 중요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부지런히 구하고 지혜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88 : 118)

“교회내의 질서를 확립하라. 연구하며 공부하며 모든 양서를 통독하라. 여러 나라의 언어와 방언을 통달하며 여러 국민과 친숙하라.”(교성 90 : 15)

우리가 모두 탐구하여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은가!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이란 사실 “선하게 되는 방법”만큼이나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이다. 간단히 가르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르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작업이요, 단순한 규례가 아니다.

실제로 읽는 법, 쓰는 법 즉, 의사 소통의 방법을 배운 사람은 이러한 것이 모두 공부와 관련되었음을 알게 되고 탐구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된다.

좌우간 「공부」라는 것도 습득해야 할 일종의 기술이며 구체적인 방법을 쫓아 상당한 개선과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몇개 효과적인 탐구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들어 보면 :

규칙적인 계획표.

머리를 집중할만큼 조용한 분위기.

계속적으로 필요한 안내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의 선정 등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어떻게 시간을 선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의 연구 계획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몇개 일반 법칙은 꼭 지켰으면 한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프란시스 피·로빈슨 박사는 세칭 “Q3R조사”라고 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 방법은 조사, 의문, 독서, 암송, 복습의 영어 약자다.

로빈슨 박사의 방법을 전면 받아 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니나 개인의 학습 방법을 개선 발전시키려면 이 방법의 열만큼은 받아 들이는데 좋다. 물론 주일 학교에서의 공과 진행, 직업분야의 위치 개선, 국민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로빈슨 박사의 방법은 주로 서적 연구를 중점으로 한 것이나 지도서, 소책자, 논문등을 다루는데 적용해도 도움이 된다.

I. 조 사

가. 장기 조사 계획

1. 책자의 머리말 내지 안내를 읽고 저자의 의도를 알아낸다. 계속 읽어가면서 저자가 의도한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 낸다. 아울러 저자가 의도한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가의 여부도 알아낸다.
2. 목차를 읽는다—목차는 책의 지도라 할 수 있다. 질문의 답은 책의 앞 부분에 준비되어 있다, 그다. 음엔 다른 참고 서적을 찾아도 된다.
3. 대충 책의 페이지, 그림, 활자의 크기, 도표, 케도 등을 살펴본다. 책의 모양이나 성격이 이런 것으로 크게 좌우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간 배정 및 계획을 철저히 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필요한 참고 서적을 읽을 시간도 미리 계획할 수 있게된다.
4. 더 깊이 알아보겠다는 태도를 갖고 저자가 기록한 이상의 것을 알아보겠다는 노력을 계속한다. 다른 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학습에 있어서 계획한 것보다 조금 더 하겠다는 습관을 기른다.

나. 단기 조사 계획

1. 각 단원의 제목을 읽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를 생각해 둔다.
2. 한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결론을 먼저 읽는다. 결론을 먼저 읽음으로써 내용 전개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는다.

II. 의 문

- 가. 소 제목을 모두 의문문으로 바꾼다.
- 나. 내용을 읽되 의문문으로 바뀐 소제목에 대답한다는 생각을 갖고 읽는다. 바로 바로 합당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정신을 집중해서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나 같다.
- 다. 책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든 책에 표시를 하던가 다른 종이에 표시를 하도록 한다. 늘 연필을 들

고 공부한다. 한번 읽어서 분명한 뜻이 전달되지 않
거든 다른 참고 서적을 읽던가 권위자에게 물어 분
명히 이해하도록 한다.

라. 사전, 백과사전등의 기본 참고 서적을 참고 한다.

그 밖에도 늘 싹값으로 구입이 가능한 독서법, 단어
암기법, 철자 연구, 문법 서적등을 학습의 도구로 삼
는다. 이런 기본 문제에 익숙해 지면 학습의 능력
도 커진다.

Ⅲ. 독 서

책에 나오는 질문에 일일이 답하면서 읽었을 때 비로소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Q 3 R 조사”의 요점이
중복되는 것 같아 한마디 한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우리는 모두 책을 읽는다던지 할 때
이미 이상의 방법을 채택해 온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관심 했거나 잊어버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걸 다시 분류하여 좀더 분명히 강
조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
로 익히는 것이다.

이 방법에 비친 독서의 자세는 극히 “활발하게”라고 되
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잉크로 줄 몇개를 긋는 간단
한 작업이 독서를 “활발한 것”으로 유도해 간다는 얘기다.

물론 이렇게 하자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
이 이미 갖고 있던 것 위에 효과적으로 첨부되던가 연결
될 때 보다 유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활발하게”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지식을 잘 정리
한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 된다.

Ⅳ. 암 송

유의해야 할 두가지 문제

가. 반복하여 읽던가 외우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
러니까 많이 읽을 수록 후에 기억하기 쉽다는 얘기
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우리의 이름을
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공부해 두면 기억하기 쉽
다. 예를 들면 긴 문장은 시각을 통하여, 그리고 한
번 이를 적어 봄으로써 감각을 통하여 익히게 된다
는 얘기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도 큰 소리로 외어
야 한다.

이미 배운 사물의 의미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
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의 양과 질을
모두 배웠다고 할수 있다. 이런 방법은 소수의 사
람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채택된다.

Ⅴ. 복 습

복습이란 다시 익힌다는 소리다. 사람은 흔히 즉석에서
이해하고 또 즉석에서 암기하려 든다. 연구하는 시간을 여
러번으로 배정하는 것이 한꺼번에 장시간 연구하는 것보
다 효과적임이 조사에서 밝혀졌다. 환언하면 여덟 시간의
연구시간이 활당되었을 경우 한꺼번에 여덟 시간을 다 쓰
는 것 보다 네 시간씩 둘로 나누면 보다 효과적이라는 얘
기다. 이는 주일학교의 공과를 가르친다던지 시험하려 할
때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하면 “주입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사람이 여
러 가지 저서를 낸 바 있다. 이에 관한 논문, 저서, 소책자
등이 많다. 이문제의 연구 과정은 성인 교육기관, 대학등
여러곳 에서 준비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탐구하고 연구”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보
다 나은 연구 태도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나의 칠판 서약

나는 매일 복음공부와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과 언행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나는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나는 정확한 십일조와 금식헌금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신권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신전에 갈수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 하겠습니다.

나는 지혜의말씀을 지키 겠습니다.

〈유년 주일학교 차지〉

이 노래는 유년주일학교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노래를 배우는 동안에 어머니에게 호성을 바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어머니에요

백키리힐

1. 바른길 모두 보이시고
2. 내 눈물 모두 닦으시고

밤이 새도록 살피시며
먹여 주시고 입히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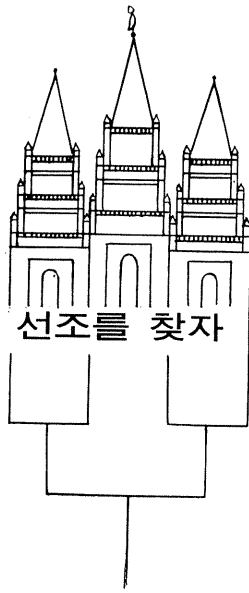
남달리 나를 도우시는 분은
남달리 내가 따르는 분은

날 사랑하는 어머니에요
날 사랑하는 어머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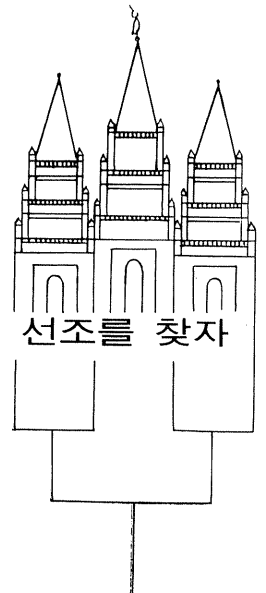
어머니에요

1. 바른길 모두 보이시고
밤이 새도록 살피시며
남달리 나를 도우시는 분은
날 사랑하는 어머니에요

2. 내 눈물 모두 닦으시고
먹여 주시고 입히시는
남달리 내가 따르는 분은
날 사랑하는 어머니에요



약속된 자녀들



충실한 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약속된 아들 야곱은 열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열 두 아들 중 끝에서 둘째가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었다. 아버지는 다른 아들 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하였으므로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충애를 받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 (창세기 37 : 3—4)

요셉은 자기와 자기 형제들이 들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을 때 자기의 곡식 단이 일어서자 다른 열 한 형제의 단이 둘러서서 그 단 앞에 꿇어 절했다는 꿈을 꾸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꿈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요셉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미워하고 이르기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하였다. (창세기 37 : 7—8)

요셉에 대한 그들의 증오감은 더욱 커졌으며 이는 그가 의로웠고 하나님의 충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것이니라”는 구절이 있다 (창세기 37 : 18—20)

만형인 로우벤은 다른 형제를 설복하여 그의 목숨을 살려두게 하였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으며 후에 유다의 제안으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상인에게 팔아 애굽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요셉은 포로로 잡혀 있었으며 후에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투옥된 적도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 감옥에서 구조되어 바로의 충애를 받고 그 땅의 위대한 통치자가 되어 바로 다음 가는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기근으로 멸망해 가고 있을 때, 애굽에는 요셉이 현명하게 관리하여 모은 양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 형제가 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

리하여, 요셉이 전에 꾸었던 꿈이 실현되었다. 요셉의 구가를 받은 이스라엘 집안은 기근을 면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가문 중에는 장자에게는 특별한 축복인 장자 상속권이란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축복은 그가 계속하여 충실할 때에 한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으나 범법으로 그 축복을 상실했으므로 이 장자 상속권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이 가장 충실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에게 전하였다.

야곱은 아버지인 동시에 축복사로서 늙어서야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었다. 그는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면서 이르기를 그가(요셉이) 더 많은 자손을 갖게 되며 모든 시련을 이기고 번성하게 되며 그의 기업이 영원한 신들의 경계에 까지 이르리라고 선언하였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고, 그들에게는 자기가 실제로 난 아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동일한 몫을 상속해 주었다(창세기 48:5). 야곱은 그들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말했다. 그에 “요셉이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로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이스라엘이 나이가들어 눈이 어두어서 거의 볼 수 없었으나 그의 바른 손을 펴서 차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팔을 엇갈리게 얹었기 때문이었다.” (창세기 48:14)

요셉은 그것이 자기 아버지의 잘못으로 알고 그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 하여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말하자 그 아버지는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이르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므낫세의 앞에 세웠다(창세기 48:17~19).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 요셉 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나라 가운데에 퍼졌으나 그들은 장자 상속자로서 말일에 복음의 진리를 받아 들이기 위하여 처음으로 모

일 자들이다. 그들은 장자의 권한을 갖고 충실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신권을 갖는다. 그들은 땅의 모든 나라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이스라엘 자녀들을 모으는 일에 종사한다. 그들은 레이먼 백성들에게 전해질 희망과 구원의 벵세이지가 실현있는 물몬경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신전에서 더 높은 신권의 축복을 줄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선조들이 삶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요셉 앞에 왔던것 처럼 북쪽 나라에서 시온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말일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손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교성 133:22~30).

부리감 영 대관장도 말일에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장소에 관하여 이와 같이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가문이며 우리는 그들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이나, 혹은 중국, 러시아, 영국, 칼리포니아, 북 혹은 남 아메리카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 오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 가문을 구하려고 그의 손을 얹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설교집 2:268).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이 진리를 마음 속으로 생각해보면 선지자 오바냐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고 말했다 때에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오바다 1:21)

복음의 우리 가운데에 지금 까지 모여들었고 또 지금 모여들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은 혈통과 개인적인 의로 인하여 신권을 약속받은 에브라임의 자손들이다. 우리들은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했던것 처럼 말일의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충실한 자에게 임할 약속된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고 성스럽게 되어 준비에 임할수 있도록 시온산에 올라가서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복음의 신성한 구원의 의식을 집행할 구원자들이다. 이 모든 원리는 주님의 집과 죽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과업과 관계된다,



兄弟愛

선교부장
스펜서 제이 팔머

兄弟愛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참된 兄弟愛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까? 韓國의 聖徒間에는 참된 兄弟愛의 精神이 깃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兄弟愛를 어떻게 定義하십니까?

저는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영의 자손으로 같은 목적을 갖고, 하나로 단합하여 지상의 왕자로 군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간결하고 단순한 복음의 원리를 좇아 生活하는 말일 성도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싶습니다.

두터운 兄弟愛에서 싹트는 사랑이야말로 신권의 제반 활동중 첫째로 꼽아야 할 것이며 오직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로 전달되는 끝없는 구조와 안내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헐뜯는 험담과 증상은 곧 형제애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아 놓고 맙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 덕을 쌓으며 내앞에서 기록할 지어다.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교성 38 : 23 ~25)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 혼란과 무질서의 원리로 서로 대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참된 兄弟愛와 平和로 단합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 24절의 내용과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교회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方法으로 참된 兄弟愛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특유의 전통과 관습에 영향받아서 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福音가운데서 참된 兄弟 姉妹로 함께 生活하는데 말 못 할 問題點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충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1. 전통적인 한국社會는 소위 上流와 下流로 그 우열을 말하는 하나의 “계급의식”이 뚜렷하다는 點입니다. 兄弟愛라면 완전한 平等意識에서 나옵니다만 한국의 사회관계는 역시 다각적인 점이 특색입니다.

2. 한국성도들이 完全한 意味로의 兄弟愛를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兄弟愛란 單純한 單語 혹은 信仰개조 같은 표어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그 이웃과 더불어 하루 하루를 生活하느냐에 직접 연결된 行動 바로 그것입니다.

3. 傳統的인 韓國社會의 열망은 어떻게 권세를 쥐느냐 아니면

어떻게 유명해 지느냐에 연결됩니다. 여러 개의 타이틀과 장식과 권세가 붙은 판리가 된다면 아니면 중요한 요직의 자리를 차지하면 바로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생각이 교회내에서 교회 지도자로의 한국성도의 본분을 잊게 했습니다. 地上에 살았던 사람中 가장 큰 權勢를 가졌던 분으로, 하늘의 천사를 불러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시킬수 있었던 예수는 그의 제자를 그의 사랑하는 兄弟라고 불러 참된 兄弟愛의 유대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였으며 자기를 생각하기 전에 남에게 봉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生活하는 중에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이어야 함을 力說하셨습니다. 과연 스스로를 낮추어 남에게 봉사하는 자 만이 주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개인의 社會지위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고로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다만 높이 앉아 빈 소리만 전달하는 자요 나아가 봉사하고 사랑과 겸양으로 남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4. 파벌주의 精神이 한국에서의 성도들의 兄弟愛 成長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소속된 선교부내의 특수 지부나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참된 우의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지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파벌의식이나 기타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5. 친우로서의 교분이 없이는 兄弟愛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로써 동거 동락함이 없이는 서로 절친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선교사를 대할 때는 흔히 참된 兄弟愛의 정신을보이나, 그러나 일단 공과교실이나 교회활동의 이외의 곳에서 이를 이행하는 경우를 자주 보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회원은 지부내의 젊은이를 대함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6. 험담, 증상, 모략 그밖에 다른 회원을 비난하는 일체의 좋지 못한 언사가 한국 성도들간에는 너무 빈번히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습이 이 백성들의 주변에서 말소 될 때까지 하나님 왕국의 참된 역사와 신앙인의 참 유대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남을 공공연히 비판하고 헐뜯는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일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교회 회원및 지도자는 특히 교회신문에 실린 다음 이야기의 내용에 마음을 두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험담과 중상

“죄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무리에게 하셨을 때 예수는 인류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음을 강조하셨다고 본다. 아울러 예수는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의 약점을 들어 힐난하고 꾸짖을 자격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실도 가르치셨다.

누가 감히 그 이웃을 비판하겠는가?

남의 행동을 보고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며 그 마음의 속속드리를 파헤쳐 공정하게 대해줄 만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누가 과연 질책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가?

과연 누가 저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다...”라고 말하겠는가?

사실 이 세상에는 남을 자기만 못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

우리가 평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훌륭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훌륭하다는 사람들에게서는 극히 나쁜 면을 찾아보게 되니 인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한 이야기는 옳다.

그렇다면 어찌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

대개의 경우 험담이나 중상모략은 거짓에 근거를 두거나 반쯤 거짓인 것에 근거를 둔다. 대부분 이러한 험담은 악의 내지 자기만 의롭다는 생각에서 반복되게 마련이다.

주는 험담을 거짓을 말하는 혀에 비유하셨다.

잠언 6장에 있는 주의 말씀을 살펴 보면,

“주가 미워하시는 것이 욕된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대개의 험담은 그 험담을 한 사람에게서 직접 듣지 못하는게 상례다. 험담을 하는 사람도 이야기할 재료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는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왠 모략족속이다. 결국 이들은 남의 인격을 상해하는 자격이 되는 것이다. 남의 이름을 더럽힐 권세를 쥔 자는 누구냐?

거짓을 말하는 혀—간악한 형제—악으로 달려가는 발—거짓 증언—거짓말쟁이—불화를 심는자, 이 모든 것은 주가 가증한 것으로 여기서 저주하시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주의 거룩하신 곳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겠는가? 남의 인격을 해치는 자격을 맞을 만한 자리가 과연 천국에는 있는가? 자기 이웃을 함정으로 몰아 넣을 엉뚱한 꿈을 꾸면서 성찬을 합당하게 들수 있는 자는 있는가? 계속해서 거짓 증거를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영적인 성품을 기를 수 있을까?

형제를 돕기는 커녕 그를 모략하면서 말일 성도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를 원할 수 있을까?

주가 악한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를 지적하시며 더불어 중상하는 자를 함께 지적하신 사실은 흥미 있는 일이다.

사람이 자기의 선한 이름을 지키고자 피로써 이를 방위했던 때도 있다.

만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이름을 지킴에도 이와같이 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범법한 자를 용서하고 불행에 빠진 자를 보호함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과 친절의 정신이 아닐까?

만일 말일성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될 수 있겠는가?

선한 이름이 모략 중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감싸 주는 것이 육신의 상처를 감싸주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남의 선한 이름을 도적질하는 것 보다 더욱 간악한 도둑질이 있을 수 있을까?

산상수훈에서도 밝혀졌지만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뇨?”

결국 험담이나 모략은 그리스도와는 먼 것이다.

7. 일반적으로 한국 성도는 남을 돕고 사랑하는 보다 폭 넓은 마음을 길러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성품과 여건을 가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바 “모두가 죄인이로다—”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요, 지속적인 향상을 약속하는 복음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탕한 아들과 잃은 양의 비유에서 처럼 이런 경우 특별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국의 옛 관습을 살펴보면 죄진 자를 끌어내어 갓고 있던 모두를 박탈하고 사회의 맨 밑으로 쫓아내며 제주도나 다른 외딴 섬으로 쫓아버리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생각의 천분의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聖徒들은 남을 용서함에 지극히 용서한데 이 점을 깊이 누우치고 과오를 범한 형제와도 참된 兄弟愛를 기르도록 努力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안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다 폭 넓은 행동 무대를 설계하고 선택된 몇몇이서만 集會를 운영한다는 식의 思考方式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기도나 성찬 축복을 맡은 “새 얼굴들”이 아쉽습니다.

지부단위의 보다 많은 활동 사업이 필요하며, 노년의 모임도 보다 사교성을 띄운 큰 스케일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과 모임을 통해서 비로서 우리는 개개인의 친교를 교회안에서 발전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젊은 이들이 보다 강한 간증을 얻고 있는가, 혹은 선교사가 되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는가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끼리의 결혼을 장려하고 주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사랑을 말로도 나누고 행동으로도 나누도록 합시다.

끝으로 매리온 디. 행스장로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모두 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지녔다. 우선 나는 살아있오 라고 의치고자 한다. 또한 저들은 내게 관심을 가져주오, 내게 이야기 해 주오, 내가 중요하다고 확실히 이야기 해 주오, 꼭 그래야 겠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의치는 자에게 명백한 대담을 해 줌으로써 참된 兄弟愛를 기르도록 합시다. 우리의 꿈과 소망을 여기에 걸어 봅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가서 2장 11절~12절)